



◇ 지난날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사원경제 활성화' 세미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참석하는 등 교계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생산불교로 거듭나자”

사회문제연구 '사원경제 활성화' 세미나 요지

'사원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와 조계종 중앙총회 재정분과위 공동주최로 지난날 2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현 총무원이 표방한 '한국 불교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단의 물질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산불교'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참석하는 등 '생산불교'에 대한 교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먼저 '원시불교시대 교단의

경제적 신분보장 등을 들었

이와 관련 지명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중원 종법상으로는 사찰제정이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먼저 7~30명 이하의 신도 간부에게 재정을 공개토록 한 후, 점차적으로 재정공개 한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을 발표한 영담스님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불교의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불교의 종파와 포교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불교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기영교수(동국대)는 "인도에서는 부처님 입멸후에 유부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화제경제가 시작, 불기 1백년경에 상업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며, "불교계

을 담당하는 2원구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의 생산관"을 발표한 관만교수(동아대)는 "방편지(方便智)는 세간에 있는 모든 생산활동을 뜻한다"며, "생산활동이 그대로 불행(佛行)이라고 하는 생산관이 확립될 때 비로소 적극적인 현실적인 의미의 6바라밀을 통한 생산불교의 진취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기영교수(동국대)는 "인도에서는 부처님 입멸후에 유부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화제경제가 시작, 불기 1백년경에 상업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며, "불교계

재정공개 절실... 관광상품 개발·생협 운영 스님 개인시주물도 종단상속 법안 필요

생산관"을 발표한 영담스님(중앙승가대교수)은 현 승가 재산관리의 허점을 지적, "현재 시주물이 비구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비구가 열반 또는 환속한 경우, 그 유산들이 일반 사회법에 적용되어 형제, 친척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도 종단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이었다"며, "비구 개인의 시주물에 대해서도 종단으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발표와 관련, 토론자인 박경준교수(동국대)는 "원시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고 재가자는 재정과 생산

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불교적 생산관과 경영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철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 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조계종단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57개 관할 사찰의 관할인구 약 2천6백만명이 부담하는 관할로 1백73억5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사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개선방안으로 △종단내의 법회, 회계,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원경제기획단 설치 △합리적인 토지 관리 △분사 및 주요사찰의 자산 및 재정 통제 △표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지속적인 의식교육 △스님들의

활동 △사회복지 및 교육사업 △신용협동조합·생수판매 사업 △단기성자금의 운영 등을 제시했다.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이에 대해 "이제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전환할 때"라며, "불교계가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벌이는 한편, 진문수행원을 설립해 수행기공을 유지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료란 소개된 박호남씨(삼가불민족학교 교장)의 '동남아 각국 불교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논문은 동남아 각국 불교의 현황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재

바른신행 이정표 세우기 불교학자들 나섰다

利他·자기완성의 길 모색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4일 신행세미나

우리나라 불자의 신행(信行)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바른신행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5월4일 오후 1시30분 동국대 동국관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비학문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신행'의 문제를 불교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 개념정립과 함께 올바른 신행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이 발의한 이번 주례로 여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불자들의 신행형태를 견정하고 계을 통해 비취보면서 문제점을 파악, 불교신행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발제강연을 맡은 권기중교수는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이란 발표문을 통해 "불교는 지력(自力的) 신행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현실은 미타신앙을 중심으로 관을 지장신앙 등의 타력(他力)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며,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에

불교적 교설이나 신행방법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불교의 본질이나 신행의 궁극적 목적이 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불자의 신행형태'를 발표하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불교신행의 기본"이라며, "모

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가 대·소승을 일관해서 바른 불교신행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5계파지(五戒把持)운동이 불교신행의 골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율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를 발표하는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장)는 오늘날에 맞는 불교사상과 불교신행을 확립하기 위해 △출가교단이 수지할 계율(戒目)과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 현대에 맞게 정립하는 기구를 조직할 것, △한국승가 전체의 계율을 제정할 후 세계승가회에 이를 제출, 세계불교인의 계율로 승화시킬 것, △인류평화와 지구보존의 불교적 생명윤리를 UN에서 의결토록 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은 오늘날에 맞는 불교사상과 불교신행을 확립하기 위해 △출가교단이 수지할 계율(戒目)과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 현대에 맞게 정립하는 기구를 조직할 것, △한국승가 전체의 계율을 제정할 후 세계승가회에 이를 제출, 세계불교인의 계율로 승화시킬 것, △인류평화와 지구보존의 불교적 생명윤리를 UN에서 의결토록 할 것 등을 제시한다.

는 오늘날에 맞는 불교사상과 불교신행을 확립하기 위해 △출가교단이 수지할 계율(戒目)과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 현대에 맞게 정립하는 기구를 조직할 것, △한국승가 전체의 계율을 제정할 후 세계승가회에 이를 제출, 세계불교인의 계율로 승화시킬 것, △인류평화와 지구보존의 불교적 생명윤리를 UN에서 의결토록 할 것 등을 제시한다.

는 오늘날에 맞는 불교사상과 불교신행을 확립하기 위해 △출가교단이 수지할 계율(戒目)과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 현대에 맞게 정립하는 기구를 조직할 것, △한국승가 전체의 계율을 제정할 후 세계승가회에 이를 제출, 세계불교인의 계율로 승화시킬 것, △인류평화와 지구보존의 불교적 생명윤리를 UN에서 의결토록 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인한스님



◇목정배교수



◇권기중교수



◇목정배교수



◇강건기교수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귀의에서 사후서원 실현까지 일관성 가져야 교리왜곡 혼란극복 '오계실천운동' 전개주장

일제지정 문화재 재평가 작업

문화재 관리국 왜색질은 명칭등 국민감정 수렴 개선

문화재관리국은 일제시대 지정된 국가문화재를 광복 50년만에 전면적으로 재평가·재정비키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날 26일 문화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렁소 왜색질은 명칭을 사용한 동태왜성 등의 성곽이나 사적지 등에 대한 국민감정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작업은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차례 지적돼 온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는 총 6천8백여점이며, 이중 일제시대에 지정된 것은 4천여점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은 1933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령'이 공포되

면서 시작했다. 해방후에는 문화재 지정이 사실상 한동안 중단상태에 있었고 196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돼 오는데 이르렀다.

일제시대 보물로 지정된 것들은 해방후 일괄적으로 국보로 격상됐고 1963년 1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재지정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때의 분류기준이 애매한 점이 많았고 문화재의 이름 역시 일제시대 만들어진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경주 남산 瑜伽불교 성지였다" 동대 문명대교수 '신라문화' 10·11집집서 주장

우리나라 최대의 야외박물관이자 세계적인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돼온 경주 남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의 <신라문화> 제10·11집 합집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문명대교수(불교미술)는 "경주 남산불교의 변천

과 불곡(佛谷)감실 불상고"란 논문에서 "남산의 수 많은 불교의 영향으로 집중 조성됐으며 불곡(부처굴)의 감실 석굴은 우리나라 석굴의 시원"이라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신인사와 칠불암, 남산 정상에 용장사유기불교

의 종합), 장곡굴의 삼화령 미륵상존불, 약수굴의 대마에 불입상 등으로 이루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어간 남산이 유가불교의 성지로 꾸며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랑세기' 제2필사본 노태돈교수 발굴발표

지난 89년 김대문의 저술인 <화랑세기(花郎世紀)>의 필사본으로 추정되었던 <화랑세기(花郎世紀)>외에 또다른 <화랑세기>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노태돈교수가 지난날 22일 열린 역사학회 제325회 월례발표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 이 필사본은 1백60쪽으로 기존 필사본이 32쪽인 것과 비교하면 내용이 5배나 많은 것이라 발문에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향가도 나와 이미 소개된 <화랑세기>의 모본(模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태돈교수는 '92년 또 다른 <화랑세기>의 필사본을 찾아낸 뒤 원소유자

(또는 위작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국대 이기동교수는 구(舊) <화랑세기> 내용의 허위성과 자제(字體), 용어 등의 문제점을 들며, "이책은 조선후기에 쓰여진 연애소설류이다"라고 잘라 말하며 기왕의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정신문화연구' 68호 발간

허홍식교수 논문등 9편수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제)의 학술지인 <정신문화연구> 제68호가 나왔다.

이번 논집에는 보현결사의 제4대 주지였던 진정(眞靜)국사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현의 불교사관을 비교한 허홍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논문 '진정국사의 불교사에 대한 지식과 사관'을 비롯, 기획논문으로 △비교종교학의 장래/이은봉 △한국 종교학의 회고와 전망/장문구 △한국철학과 창조적 지성/정해창 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禪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은가?

禪수행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진제대선사의 선이야기

禪백문백답

문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이치는 깨달았어도 습기는 除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답 그것은 모순이다. 물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습정을 하면 습기와는 상관이 없다. 번뇌가 곧 보리, 완전히 진리로 돌아갔는데 번뇌에 돌아나게 되겠는가?

경오년 4월 수선회와 의 문답 중

본문 중에서

문 스님께서서는 화두를 目前에 두라고 하셨는데, 목전에 둔 화두 있고 화두 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하던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답 둘로 어떻게 쪼개져. 그건 온 정신을 목전에 두라는 말이지. 목전에 두는 것이 숙달되면 앉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걸어도 때도 그렇고 누울 때도 그렇고, 어느 때건 한 생각 모으기가 쉽다.

경오년 동년경 정진대중과의 문답 중

하하, 알고 또한 알겠는가?

떨어진 꽃은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띄기나,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 떨어진 꽃만 보냅니다.

-서문 중에서-

큰스님의 말씀



마리나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651-1번지 TEL.(053)252-4825 / FAX.(053)252-7549

도서공급처:운주사 (Tel. 02-720-9372~3)

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쉬운 대화체로 엮었습니다.